“천진불 하모니로 불국토 세울 것”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제1회 연합합창제’ 개최

제주 약천사 등 전국 4개 사찰
“사찰 규모 작아도 할 수 있다”
어린이 합창단, 가족법회로 이어져
어린이 포교 · 인성교육 등 효과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스님들이 어린이 포교를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관음사 주지 영산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 함양 서암정사 주지 법등 스님, 영도 대원사 주지 담화림 스님.

“천진불은 부처님의 환희이며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찌들고 힘든 세상에 어린이는 존재 자체로 힐링이며 삶의 힘이 됩니다. 천진불 세상을 꿈꾸며 연합합창단을 조직하고, 이제 첫 공연을 시작합니다.”

미래 불교의 동량, 맑고 밝은 천진불의 세상을 꿈꾸는 스님들의 행보가 시작된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성원, 이하 합창단연합회) 증명법주 지현 스님(관음사 회주)은 1월 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18일 오후 6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서 열리는 제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새처럼 날아라 별처럼 빛나라’ 의미를 설명했다.

합창단연합회는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함양 서암정사 주지 법등 스님, 부산 영도 대원사 주지 담화림 스님, 부산 관음사 주지 영산 스님이 어린이 포교를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각 사찰은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상림어린이합창단’, ‘대원선재합창단’, ‘단이슬어린이합창단’ 등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스님들은 합창단 활동이 ‘젊은 불교’에 다가가는 바탕이 된다고 했다. 어린이 활동을 지지하는 자모 모임이 자동으로 구성돼 사찰에 활력을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찰서 운영하는 복지 기관에서 어린이들이 음성공양으로 봉사 활동을 펼쳐 인성 교육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부처님의 법을 음악을 통해 쉽게 접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한 사례로 영도 대원사 주지 담화림 스님은 1년 만에 50여명의 어린이들이 사찰을 찾고 자모 모임이 구성되어 지역 내 가장 젊은 사찰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담화림 스님은 “저희 사찰은 범어사 240여 말사 가운데 가장 작은 사찰로, 노보살님들 몇 분이 찾는 정말 작은 도량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님은 “10여명의 어린이를 처음 모아 단복을 지원하고 지역을 돌며 홍보했다. 그 효과로 현재 어린이와 자모를 합쳐 100여명이 찾는다. 자리가 비좁아 지난 12월에는 대원문화회관도 문을 열고 기타, 해금반, 다도반 등 다양한 문화 수업도 시작했다”며 “유치부를 위한 공간도 필요해 불사도 했다. 현재 영도 내 가장 젊은 사찰일 것”이라고 효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담화림 스님은 합창단을 운영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는 사찰들에게 “영도 대원사처럼 작은 곳도 해냈다는 것에 힘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 서암정사 주지 법등 스님은 “우리 사찰은 산 속에 있어 읍내에서도 40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한다.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어머니들 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관심이 커서 가족법회에 초석이 됐다”며 “단복을 입고 활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활기차고 시골에서 문화활동을 위한 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관음사 주지 영산 스님은 “어린이 찬불가 콘텐츠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더 많은 찬불가를 개발하고 부처님 법을 담도록 방향을 이끌 것”이라며 “이번 첫 연합 합창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합창제는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합창단의 눈꽃송이 외 3곡으로 시작해 ‘상림어린이합창단’, ‘대원선재합창단’, ‘단이슬어린이합창단’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청공불교남성중창단의 특별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은 무료 초대석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51)864-4569~70

하성미 기자

“낡은 구각 깨고 활보하는 새처럼 날길”

부산불교, 신년하례회 통해 화합과 결속 다짐


부산불교연합회는 1월 5일 코모도 호텔 1층 그랜드볼룸서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새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부산불교가 2017 정유년을 맞아 신년하례회를 봉행하고, 불국토 건설과 부산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월 5일 코모도 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불교연합회는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부산불교와 문화발전에 도모하고, 공익을 위한 지역 사회와 국가발전을 지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뜻을 밝혔다.

회장 경선 스님은 “올해는 닭의 해, 정유년이다. 모든 새는 알을 깨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시켰던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깨는 것은 어린 새의 숙명”이라며 “낡은 구각을 깨고 세상을 활보하는 자유의 상징이 되는 새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는 부산 불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신년하례에는 회장 경선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정산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서병수 시장 등 사부대중 800여명이 동참했다.

(사)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조연, 이하 승가연합회)는 1월 4일 코모도 호텔 1층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승가연합회는 신년 하례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발원하며 저소득층 지원, 경로효친사상 고양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사무총장 혜창 스님은 “본회는 창립 당시부터 불우이웃돕기 헌금을 비롯해 월동용 연탄지원, 출산 장려, 한부모가정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펼쳤다. 271개 회원 사찰이 전력투구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매진해 나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장 조연 스님은 “국가 발전과 정치 안정, 국민의 행복과 부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기원하는 부처님 전의 기도는 새해 첫날 모든 이의 원력으로 뜻 모은 것”이라며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가피를 힘입어 원력을 널리 펼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승가연합회 신년하례회에는 흥교 스님(창원 성주사 회주), 도성 스님, 경담 스님 및 서병수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어려운 이웃돕기에 부산 불자 ‘한마음’

남구불교聯, 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 남구 지역민을 위해 불교가 한마음으로 뭉쳤다.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1월 3일 부산 남구청 5층 대회의실서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남구불교연합회는 2013년 ‘수영구 · 남구 불교연합회’에서 분리된 후 재창립해 그 역사가 짧다. 하지만 창립 후 나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매년 이웃 자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 회원 사찰 80여개와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일일 찻집은 한해 마무리와 시작을 나눔행으로 연결하는 장이다. 이번 성금도 지난해 11월 20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서 개최한 일일찻집서 모은 수익금이다.

성금은 남구청을 통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총 3기관에 전달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고루 분배될 예정이다.

남구불교연합회는 2014년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성금 600만원과 쌀 2,010kg을 후원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겨울,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나눔 활동에 마음을 보태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마음챙김으로 자기불안 떨쳐보자

부산 시선원, 마음챙김 자기연민 프로그램 실시

실망과 좌절은 곧장 자신에 대한 비하와 질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기 비난과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 마음의 새 길을 얻는 법을 일러주는 강의가 시작된다.

부산 시선원(우현 법사)는 ‘마음챙김 자기연민(MSC, Mindful Self-Compassion)’ 프로그램을 1월 15일~2월 12일 매주 일요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시선원 명상실에서 진행한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강사는 우현법사(마음챙김교육원 원장)가 직접 진행한다. 선착순 15명이며 회비는 30만원이다.

프로그램은 △마음챙김적 자기연민 발견하기 △일상에서의 자기연민 △우리의 가슴 일깨우기(자애실습) △연민적인 목소리 발견하기 △깊이 있는 삶 △힘겨운 감정 만나기 △힘겨운 관계의 전환 △당신의 삶 포용하기 순으로 이어진다.

시선원은 “MSC는 미국 하버드 의대 임상심리전문가 Christopher K. Germer 박사와 텍사스대 심리학과 교수 Kristin Neff 박사가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이 보장된다”며 “마음챙김인 지혜의 영역과 자기연민인 자비의 영역서 삶의 고통을 건강하게 다루는 연습을 한다. 자신을 친절하게 돌아보고 나아가 타인과도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51)746-7611 하성미 기자

불국사, 성도재일 전야 기념 대법회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1월 4일 불국사 부설 문화회관 3층 강당에서 성도재일 전야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학장 덕민 스님,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최양식 경주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성불, 불국정토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불퇴전의 용기로 하루 속히 성불하고, 그 위대한 위력으로 우리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이 하루 속히 이뤄져, 온 세상이 자비와 평화로운 세계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발원했다.

회주 성타 스님은 “팔고행과 쾌락을 탈피하는 중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부처님의 사상을 실천할 때 건전한 몸과 정신이 행복하게 되니, 공생의 자연원리를 잘 알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의미가 있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